

일본 서남부지역 폭우 피해 현황

1. 피해현황 : 일본 서남부 14개 현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에히메현 등)



2. 피해규모 : 사망 179명, 심폐정지 4명, 실종자 9명 (7/11 오전 기준)

3. 수색현황 : 일본 경찰 및 자위대 등 7만5000명, 헬기 83대 동원

4. 폭우원인 : 장마전선에 태풍, 북동쪽 찬공기가 겹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여
나흘간 1,000ml 이상의 폭우가 기록됨

5. 관련기사



월드 > 동북아

日 서남부 폭우 179명 사망...'사상 최악의 피해'

200만명 이상 대피...생존자 기대감도 사라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07-11 16:05 송고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지난주 일본 서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역사상 최악의 재난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179명으로 증가](#)했다고 11일 보도했다.

BBC 방송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년여 만에 최대](#)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200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휴스턴시의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린 폭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관, 군인들을 포함한 7만5000명 이상의 구조 인력들이 여전히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새로운 생존자가 나올 것이란 희망은 점점 사](#)

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일부터 벨기에,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오카야마 현을 방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구라사키 시의 한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행보를 폭우가 쏟아진 지난 5일 밤 중의원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과 연관짓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총리 관저가 관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진에 "방문이 늦지 않았냐"며 "술자리 사진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상청은 몇 번이나 최대급 경계를 강조했다"는 비판의 글이 달리는 등 아베 총리의 행보에 여론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기자들에게 "폭우 같은 큰 재해가 술자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오카야마 현의 한 대피소를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한편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피소의 상황도 좋은 것은 아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만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일본 중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대피소에 머물며 파란색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남편과 함께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후쿠다 히로코(40)씨는 "어린 딸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대피소 생활을 괴로워해 친척집에 맡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전제품과 같은 것들을 잃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진과 같은 아이와의 추억들이 사라진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는 잠잠해지고 있지만 이제 **찌는듯한 더위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면서 에어컨이나 수돗물이 없는 대피소 내 이재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일본 서남부 호우 사태를 '헤이세이30년 7월 호우'라고 명명했다. 기상청이 호우 재해에 이름을 붙인 것은 지난해 7월 규슈(九州) 북부에서 호우 피해를 명명한 뒤 처음이다.

이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히로시마 현의 후쿠야마 시는 작은 호수의 둑이 터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현에 위치한 후추 시도 비슷한 이유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현지의 한 관계자는 경보는 낮아졌지만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AFP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에 떠밀려 온 잔해들도 치우고는 있지만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재난 지역 국민들에게 새로운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대피소 © AFP=뉴스1